

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도 설명자료</h1>		
	<b>배포일시</b>	2020. 12. 21(월) 총 1매(본문1)	
<b>담당 부서</b>	철도투자개발과	<b>담당자</b>	• 과장 김승범, 사무관 전용철, 주무관 김영조 • ☎ (044) 201-3968, 3986
	건설안전과	<b>담당자</b>	• 과장 한명희, 사무관 현기창, 주무관 공민규 • ☎ (044) 201-3584, 3576
<b>보도 일시</b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국토교통부, 부전 ~ 마산 복선전철 지반침하 사고 관련 원인조사와 신속한 복구작업 적극 대응 중

< 관련 보도내용 (내일신문 12.21) >

- ◆ 부전-마산 민자터널 붕괴 관련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도 구성 안해
- ◆ 정부가 손실비용 80%를 부담하도록 한 실시협약 조건은 특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난 3월 18일 발생한 부전~마산 복선전철(민자사업)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하여,
  - 사고 발생 즉시 **현장에 출동**하여 사고원인 등 초기조사를 실시하고, 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긴급 복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.
- 현재 한국지반공학회에서 원인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국토교통부, 국가철도공단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부조사단을 운영하고 있고, 필요시 추가적인 검증을 위하여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.
- 복구 작업 또한 신속히 진행되고 있으며, 복구작업 및 잔여 공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.
- 참고로, 주무관청이 실제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지진, 홍수, 해일 등 불가항력 사유로 제한됩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전용철 사무관(☎ 044-201-3968), 건설안전과 현기창 사무관(☎ 044-201-358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